

동성애¹ 학생의 학교 내 현황 조사

홍콩아동 권익회 성향 무한 프로그램
(香港小童群益會 性向無限計劃)

1. 서문 및 연구 방법

1.1 서문

심리학 연구 및 교육전문가에 따르면 성적 지향의 발달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한다 (미국심리학회, 2001), 또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탐색이 시작된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비율은 3~7%정도이다. 사회가 개방적이 되고 대중들의 태도가 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기에 [커밍아웃]을 한다. 우리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 경험은 그들의 심리상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동성애 학생은 진정한 지지와 존중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확립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의 물이해, 나아가 거부, 차별을 맞닥뜨리면 이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동성애자의 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발달에 주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를 통해서 가족 및 일반 대중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정부 및 학교가 교육정책의 수정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2 연구 목적

¹ 원문 同志는 원래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의미가 확장되어 지금은 LGBTI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임, 본 조사에서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관계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1) 동성애 학생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현황, 이유 및 영향 검토
- 2) 동급생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후의 태도와 대우
- 3) 교사의 태도 및 학교의 지원 현황

1.3 연구 방법

홍콩 아동 권익회는 2009년 7월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중/고등학교를 떠난지 3년 이내의 청소년 동성애자로, 492명의 응답을 얻었다. 설문지는 4개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동시에 성적 지향 무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도 발송하였다.

2. 동성애 학생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현황, 원인 및 영향

2.1 응답자의 배경

- 58%는 남성, 42%는 여성
- 19%는 11~15세, 72%는 16~20세, 9%는 20세 이상
- 16%는 현재 중학생, 51%는 고등학생, 31%는 학교를 떠난 지 3년 내
- 72%는 남녀공학, 10%는 남학교, 18%는 여학교에서 통학
- 30%는 기독교계 학교, 24%는 천주교, 5%는 불교, 40%는 종교계열 학교가 아님
- 71%의 응답자는 종교가 없고, 19%는 기독교, 4% 천주교, 4% 불교, 2% 기타

2.2 성적 지향을 숨기는 현황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장기에 주로 자기보호를 위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긴다.

- 81.7%의 응답자(402명)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교실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걸 알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온라인 상에서만 자료를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중2

[주변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의견을 줄 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착한 학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무서워요....] 중3

2.3 성적 지향을 숨기는 것이 주는 영향

- 자기의 성적 지향을 숨긴 적 있는 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을 받았다.

	남자 (%) (N=256)	여자 (%) (N=146)	합계(%) (N=402)
자신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74.6	58.9	68.9
외톨이라고 느꼈다	57.4	41.1	51.5
초조와 불안감을 느꼈다	39.8	31.5	36.8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서웠다	32.4	17.8	27.1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다른 학생들과 같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	28.9	13.7	23.4
자살을 생각했다	18.0	7.5	14.2

[다른 사람들이 내 성적 지향을 아는 것이 무서워서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도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 외톨이가 된 거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일 다른 세계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것같이 멍하고...] 16살

[저는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된 후에 저를 거부할까봐 무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성애자인 것처럼 가정하고, 여자 이야기를 하고 야한 농담을 했어요. 그렇게 가장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기 힘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고2

2.4 미국심리학회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지금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압박적인 분위기를 주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친구들의 지지 없이 홀로 곤란과 스트레스를 대처해야 하므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친구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배우고 진실한 감정을 억제하고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 굳고 높은 담을 쌓는다. 성장기, 즉 가족의 지지와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타인과 소원해지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숨겨야만 한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비록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과 친구로부터 거부당하고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는 하나 이로 인해 초조, 불안해 하고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와 지원을 잃어버려 고독감에 빠지게 한다.

3.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후의 태도 변화

3.1 전체 반응

- 거의 8할(79.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아는 학교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252명 (64.3%)가 대부분 친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n=392)
- 학교 친구들이 지금은 좀더 자연스럽게 성적 지향에 대해 인식하고(61.7%), 수용과 지지를 보여준다고 (48%) 응답하였다.
- 하지만 동시에 204명의 응답자 (53.1%)가 여러 정도의 부정적 반응과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n=392)

3.2 차별행위는 여전히 매우 불편적이고 심각하다

- 42.3%이상의 응답자가 언어 폭력, 모욕, 조롱을 당했다. (n=392)
- 39.8%이상의 응답자가 관계단절과 따돌림을 당했다. (n=392)
- 13.5%에 달하는 응답자가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을 당했다. (n=392)

3.3 동성애자 학생에 대한 조롱과 부적적인 반응은 학교에서는 매우 불편적인 현상이다. 비록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나 학교 친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과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게이자식이라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어요.] [너가 진짜 동성애자면 빨리 꺼져버려!], [더러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설문 조사 중 응답자가 적은 차별 경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절대 내 정체성을 밝힐 수 없겠구나, 절대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고4

[수업시간 중에 쪽지를 돌리면서 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시간에는 제가 탈의실에서 같이 웃을 못 갈아입게 했어요] 고3

[학교 남자애들이 저와 다른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저를 따돌리고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불러줬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애들과 거의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고4

3.4 39.8%의 응답자가 관계 단절과 따돌림을 당하고 백안시 당했다. 청소년기는 자신감을 기르고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러한 따돌림과 무시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게 만든다.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환경이 개선된다 하여도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원래 저는 학교 학생회장으로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3 때 한 친구에게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제 믿음을 배신하고 다른 애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 뒤로 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고 제가 무슨 전염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했어요. 심지어 위원회 보고 때에도 격리를 당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억울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홀로 아무런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학교를 마칠 수밖에....] 고4

[저는 원래 학교 농구부 주장이어서 인기가 많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친구에게 제 정체성을 들켰어요. 체육시간에 탈의실 안에서 애들이 절 조롱하고 욕하고 일부러 부딪혔어요. 원래 저를 따르던 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야구부 사이에서 뒷담화가 끊이지 않아 결국 농구부를 떠났어요. 성적도 원래 전교 30등 정도였는데 뒤에서 10등으로 떨어졌고요. 고1때 결국 학교를 떠났어요] 고2

[친구들이 제 정체성을 알게 된 후에 제 생활은 완전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저랑 이야길 할 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졌고 저를 마주보지 않고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두드리면 짹짹 피했어요. 이전에는 자주 어깨 동무를 하고 했는데 말이죠. 그 뒤로는 밖에 놀러갈 때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그 뒤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도 결국 제 정체성 때문에 저를 떠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하물며 누가 저를 받아 주겠어요?] 고4

3.5 더욱 심각한 것은 13.5%에 달하는 학생이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을 당한다는 것

[정말 괴로웠어요...중학교 2학년 때 애들이 제 바지를 벗겨 아랫도리를 봐야겠다고....제가 절규하자 그걸 보며 큰소리로 웃고...] 고1

[제 교과서를 찢어 버리고, 제게 침을 뱉고.....전 아무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걸까요?] 고1

3.6 상술한 항목 중 남학생이 따돌림, 차별을 당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는 것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남학생(%) (N=202)	여학생(%) (N=190)	합계(%) (N=392)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우단절	53	25.8	39.8
따돌림, 무시	42.6	17.9	30.6
소문, 모욕, 조롱	54.5	29.5	42.3
신체 폭력, 공갈, 성희롱	20.3	6.3	13.5

4. 차별과 따돌림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미치는 영향

4.1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아는 학교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04명이 여러 정도의 따돌림, 배척을 당했지만 그 중에 131명만이 자신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체의 33.4%)

- 차별은 응답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

	남학생(%) (N=92)	여학생(%) (N=39)	합계(%) (N=131)
고립무원	65.2	51.3	61.1
불안감, 초조함	59.8	41.0	54.2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무서움	50.0	35.9	45.8
자살을 생각함	25.5	14.3	22.3
학업성적에 영향을 줌	13.2	9.5	12.2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빠짐	9.4	4.8	8.1

[고2 때 제 정체성이 알려 졌고 애들이 저를 놀러냈어요.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제 잘못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고 성적이 크게 떨어져서 결국 전학을 갔어요] 대 1

[중3 때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다른 애들이 매일 우리들을 놀러냈어요. 휴식시간

에 항상 10여명의 애들이 저를 둘러싸고 참기 힘든 이야기를 해댔죠. 점점 학교에 가기가 싫어져서 결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반년 후에 전학을 갔어요] 고2

5. 차별에 대한 학교의 대처

5.1 차별을 받았다고 자각한 131명의 응답자 중 오직 15명 (11.5%)만이 교사에게 알렸다.

● 그 외 116명의 응답자 (88.5%)가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남학생(%) (N=80)	여학생(%) (N=36)	합계(%) (N=116)
교사가 알아도 도움이 안될 것이므로	71.3	75	72.4
교사가 차별을 할 것이 무서워서	56.3	47.2	53.4
가족들에게 알릴 까봐	58.8	36.1	51.7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40.0	50.0	43.1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 무서워서	37.5	30.6	35.3

[저희 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여서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웠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대면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가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교사에게 알린 15명의 응답자(11.5%)는 교사의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합계(%) (N=15)
피해학생이 남성적/여성적으로 행동하도록 고칠 것을 요구했다	60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53.3
구두 경고 또는 벌점 부과	53.3
가해학생과의 면담	33.3
피해학생이 너무 민감하다고 지적	26.7

[저는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문제가 있고 여성이라면 당연히 나긋나긋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제 개성대로 어떻게 꾸밀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대 1

[제가 교사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제가 문제라고 보고 두 시간 동안 저에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정체성을 바꿔야 하고 말투도 고치라고요. 그 뒤로는 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3

6. 학교의 동성애/양성애 학생에 대한 지원

6.1 학교의 동성애/양성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64%	응답자들은 학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답했다.
56.1%	응답자들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교에서 이를 얘기할 수 있는 믿음직한 교사나 사회 복지사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N=492)

6.2 교육부가 성교육 지침에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거의 반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학교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답했고 심지어 25%는 교사가 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4.9%	교사가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1.5%	교사가 성적 지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36.5%	교사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다.
24.8%	교사가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발언을 드러내었다.

(n=492)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발언은

16.5%	동성애자는 비도덕적이다
12.4%	동성애자는 모두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의 부정적 경험에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9.1%	동성애자는 모두 문란하다
8.1%	동성애/양성애는 모두 정신병이다.

(n=492)

[종교 수업 중에 교사가 동성애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고, 모두 문란하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교사라서 그냥 참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때 정말 괴로웠어요] 고3

[한번은 학교에서 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교사가 동성애자는 모두 정신병자이고 우울증 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게이들은 모두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때 전교생들이 모두 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교사와 애들이 제가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중3

[초조함, 고립감을 느꼈고, 제가 너무 무력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사가 저를 도우려고 [교정 치료]를 받게 했어요. 저는 더욱 자신을 몰아세우고 압박하고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도록 강요 받았어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 장기간 병상에 누워서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약물에 의존해서 생활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려고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5년간의 치료를 받은 후 친구와 가족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겨우 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대학졸업

조사 내용 결론

1. 조사결과는 학교의 분위기가 점점 개방적으로 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의 동성애 학생이 여러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고 심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을 보여준다.
2. 학교측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따돌림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해서 오직 11.5%의 학생만이 따돌림을 당한 후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3. 학교의 동성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해서 과반수의 학생이 학교가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을 수 있는 교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7. 학교내 동성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따돌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7.1 현재의 정책 및 지침

현행 정책 및 지침	문제점 및 부족한 점
◆ 2003년,교육국에서 [기획의	◆ 홍콩에는 성적 지향의 평등과 관련된 어떠한

<p>균등 원칙]과 관련된 통고를 내려 각 학교가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식적 차별도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과과정의 도덕 및 시민교육, 새 교육과정에 차별반대 및 관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교사들에 대한 연수 과정에 평등 및 성인지 개념을 포함시켰다. 	<p>입법도 추진된 적 없고 관련 지침은 결코 강제조항이 아니다. 정부가 관련 지침의 집행에 대해 평가 및 감독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정책지침 및 교육과정 역시 성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고 광범위한 지침 및 교육과정으로서 동성애 청소년의 학교 내 차별 및 따돌림에 효과적인 대처가 되지 못한다. ◆ 이번 조사에서 보이듯 학교 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따돌림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인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관용적이고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 조사에서 보이듯 25%의 학생이 교사의 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고 과반수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교 내에서 믿을 수 있는 교사나 사회 복지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여 교사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

7.2 해외 사례

학교는 교내 성적 지향에 기인한 차별 및 따돌림 문제를 예방, 대처할 수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상생의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국 단체 Stonewall의 한 조사에 따르면

- 학교가 성적 지향에 기인한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때 차별 행위가 60% 감소하였다.
- 학교가 따돌림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보다 3배가 넘는 학생이 학교가 그들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고, 2배가 넘는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였고, 2.5배가 넘는 학생이 즐겁다고 하였다.

- 학교가 성적지향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가르치고 편견을 갖지 않았을 때 학생의 심리 건강과 능률이 대폭 상승하였다.

7.3 학교에의 건의

1)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성적 지향은 사람의 수많은 개성중의 하나이다. 사회는 동성애 청소년과 이성애 청소년 간의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간의 수많은 공통점을 보고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가 수용적이고 존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개인간의 차이 존중

-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교사나 사회복지사부터 배워야 한다.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학생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경청할 때 학생들이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3) 문제 직시

- 80%이상의 학생들이 15세 이전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는다.
- 53.1%의 동성애 학생이 차별, 따돌림을 당하고 40%에 달하는 학생이 언어폭력, 모욕, 조롱, 교우 관계 단절 및 배척을 당한다.
- 13.5%를 넘는 응답자가 신체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
- 학교는 문제를 직시하고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 대처를 해서 어떠한 따돌림도 막아야 한다.

4) 차별 없는 환경 조성

- 학교는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학교가 어떠한 집단 따돌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오직 11.5%의 응답자만이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학교가 차별 금지 정책을 분명히 내세울 때 학생들이 더욱 교사의 도움을 바라게 될 것이다.

5) 올바른 자료와 지원 제공

- 오직 36%의 학생이 학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적 지향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 반 정도 에 달하는 학생이 [성적 지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 내에서 믿을 만한 교

사나 사회 복지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 학교는 학생이 성장통을 겪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고 건전한 심심발달을 지원해 줘야 한다.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 청소년은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학교는 자신의 이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학생을 지원해 줘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대해 토론하고 차별이 없을 때 학생의 심신 건강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 학교는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시민 교육, 성교육, 또는 일반 교과목 속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해 알고 자신을 알고 남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6) 공생의 학교 분위기 확립

- 오직 1/3의 교사만이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별은 종종 인식의 부족, 자신과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 심리학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접촉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해 알게 하고 동성애가 그들로 하여금 나와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7) 교사에 대한 교육 제공

- 교사는 성적 지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따돌림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7.4 정부에의 건의

1) 분명한 지침의 제정

- 교직원 모집, 입시, 교육과정, 교사배치, 내부 평가, 학생 및 교직원 문제 처리 등 학교관련 정책 시행 시, 동성애 학생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도록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학교가 교육에 있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

2) 정확한 교재 제공

- 성적 지향 및 기회의 균등이 개인 성장, 일반 교과목 및 성교육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를 가르치는 학교를 격려할 것

[나는 학교 내에 동성애 학생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지식과 정보를 공지, 개인별 상담, 학급 토론, 보충 수업, 그룹 조직, 영화 및 독서 감상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제공

하고, 학생들과 이러한 자료의 의미와 사랑의 요구 조건 및 진정한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다.

동성애도 이성애도 모두 좋은 것이다. 나는 오직 아이들이 인간의 가치는 성별 구분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이 무한히 뻗어나갈 공간이 있음을 알기를 바랄 뿐이다!]

우민화 교사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 역시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이성애 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학생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가 다양한 시야를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세계는 더 이상 흑과 백의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색채가 더해져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황샤오전 교사

부록 : 다른 나라의 학교 내 성적 지향 관련 따돌림 문제 대처 방식

대만

대만은 2004년에 성평등 교육법을 공표하여 [성별,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인간 존엄, 가치 및 성평등 교육의 자원과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법령 규정은

- 학교는 [성평등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평등 교육 과정 및 실시, 평가를 촉진해야 한다.
- 학교는 [학생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해 학습, 활동, 평가, 징계, 복리 및 서비스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성별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임신 중인 학생 등)에게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교사와 교직원의 임명 전, 그리고 재직 중에 성평등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학교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고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 교육과정 중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감성 교육, 성교육, 성소수자 교육 등을 말한다.